

월간 SW 산업 동향

2013년 3월호



Contents

I. Summary	1
II. 월간 SW 주요 통계	4
1. IT 시장 동향	5
2.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9
III. SW 시장 및 기업 동향	10
1. 패키지 SW 부문	11
2. IT서비스 부문	16
3. 신(新)SW 부문	19
4. 수요 산업 SW 부문	28
5. SW 기업 부문	31
IV. 국내외 정책 동향	38
1. 국내 정책	39
2. 해외 정책	43
V. 월간 SW 이슈 분석	46
1. 주요국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ICT 활용	47
2. 소셜웨어링의 비즈니스적 가치	59



I . Summary

■ 월간 SW 주요 통계 ■

- 내수경기 침체, 기업경기 하락으로 IT 투자가 보류·연기되면서 2013년 IT 투자는 전년 대비 0.5% 증가 전망(IDC, 2013. 3. 6)
- 국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장 2017년 7조 6,676억원 예상 연평균 4.7% 성장 전망(IDC, 2013. 3. 20)
- 2012년 국내 이러닝 총 매출액은 2011년 대비 12.1% 증가, 사업자수는 2011년 대비 2.5% 감소(산업통상자원부, 2013. 3. 26)
- 2013년 세계 IT Spending, 2012년 대비 4.1% 증가(Gartner, 2013. 3. 28)

■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 패키지 SW 】

시스템 SW: 보안 SW 시장, 2016년까지 연평균 8.2% 성장(IDC, 2013. 3. 16)

응용 SW: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출시 증가, CRM과 클라우드(SaaS)가 SW 지출을 주도

임베디드 SW: 임베디드SW 기업, 스마트카(자동차+IT) 시장 진출 가속화

공개 SW: 공개 SW, 상용 SW 사용보다 TCO 63.3% 절감 가능, 기업 핵심 영역에서 리눅스 도입 증가

【 IT서비스 】

이중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돌파구 모색에 주력, 스마트브랜치 시장 수주 경쟁 심화, 미국식 IT관리체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신사업 】

클라우드: 중소·중견기업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증가,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시스템 시장 활성화

모바일: 모바일 앱 개발자 확보 경쟁, 고부가 IT 기반 자동차 개발 증가

소셜: 기업들의 소셜 비즈니스 도입 증가, 특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

빅데이터: 국내 기업 공동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추진, 2013년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투자 본격화

【 주요 산업 SW 】

제조: Extended ERP,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솔루션 도입에 주력

서비스/통신/방송: 물류통합시스템,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안 도입에 주력

금융: 보안, 리스크관리, 스마트금융, 빅데이터 도입 및 고도화에 주력

▣ 국내외 정책 동향 ▣

【 국내 】

미래창조과학부: (기술표준원)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87개 신규 표준화 연구과제 발굴(2013. 3. 6)

안전행정부: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개최(2013. 3. 6~2013. 3. 8)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고 개선대책 발표(2013. 3. 14)

국토해양부: 공간 융합정보 생성기술/업무모델 특허 무상공유 추진(2013. 3. 19)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1,893억원의 콘텐츠펀드 신규 조성(2013. 3. 14)

【 해외 】

EU: 디지털 일자리 대연합(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 런칭 발표(2013. 3. 4)

미국: 2015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이버안보 전담팀 구축(2013. 3. 12),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새로운 온라인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2013. 3. 12), EU와 e-Health분야 협력체제 로드맵 발표(2013. 3. 15)

▣ 월간 SW 이슈 분석 ▣

【 주요국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ICT 활용 】

세계적인 자연 재해·재난으로 로봇, CCTV 활용 모니터링, 모바일 예·경보 서비스, 재난 안전 무선 통신망 등 ICT 기반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

미국: NOAA의 허리케인 예측 향상 프로젝트, FEMA의 차세대 공중 경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

영국: 환경청 주관으로 홍수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홍수맵과 홍수위험예보서비스 등 다양한 홍수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인도네시아: ICT 기반 재해정보 통합, 전달,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진행

【 소셜웨어링의 비즈니스적 가치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확대, 소비 패턴 변화로 소셜웨어링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
소셜웨어링으로 경제시스템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소셜웨어링서비스 시장이 급성장
Airbnb, PellyRides 등 소셜웨어링 전문 업체들의 증가, 소셜웨어링 업체들의 기업 가치 상승



II. 월간 SW 주요 통계

1. IT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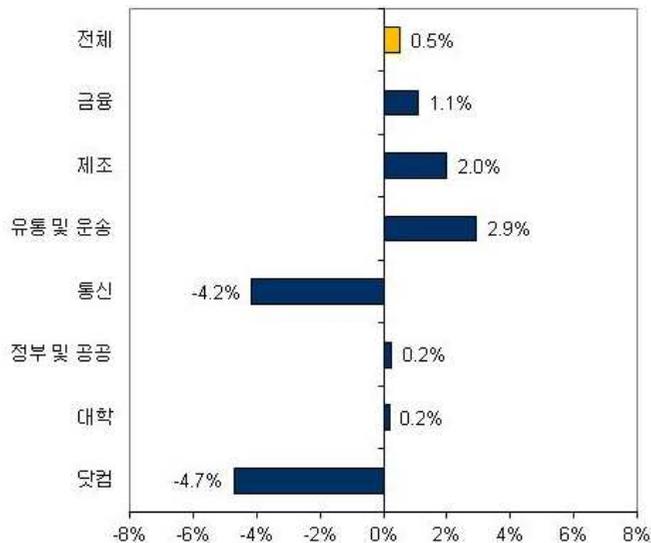
가. 국내 기업 IT 투자 전망

내수 경기 침체, 기업 경기 하락 등으로 투자가 보류·연기되면서 2013년 IT 투자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국내 기업 IT 투자 0.5% 성장 전망(IDC. 2013. 3. 6)
 - 기업들의 IT 예산 증가율은 2012년 3.2% 대비 2.7%p 감소한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 대비 실제 집행 비율도 높지 않을 전망
 - 닷컴과 통신의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영업이익 악화, 업체 간 양극화 현상으로 IT 투자 계획이 크게 감소

- 투자 심리 저하, IT 부서에 대한 비용 절감 압박으로 필수적인 프로젝트에만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는 클라우드, 가상화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표 2012년 대비 2013년 국내 산업별 IT 투자 예산 증감률



자료: IDC(2013), <<http://www.idckorea.com/product/Getdoc.asp?idx=552&field=PressRelease> >

나. 국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장 전망

모바일, 무선, 소셜 도입이 확대되면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관심 집중

- 국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¹⁾ 시장 2017년 7조 6,676억원 예상 연평균 4.7% 성장 전망(IDC, 2013. 3. 20)
 - 2012년 6조 1,047억원에서 연평균 4.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계열사 및 정부 부문의 수요가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기업 솔루션 풀을 갖춘 서비스 플랫폼 보유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별·기업별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BYOD(Bring your Own Devices) 확산에 따라 기업 DB 관리, 모바일 보안과 연계된 소프트웨어가 중요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표 국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장 전망, 2012~2017(단위: 십 억원)



자료: IDC (2013. 03), <<http://www.idckorea.com/product/Getdoc.asp?idx=555&field=PressRelease>>

1) 모바일 웹 2.0으로 구현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성을 보장하고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여 고객 대응 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다. 국내 e-Learning 시장 현황

서비스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으며, 콘텐츠/솔루션 분야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

- 2012년 국내 이러닝 총 매출액은 2011년 대비 12.1% 증가, 사업자 수는 2011년 대비 2.5% 감소(산업통상자원부, 2013. 3. 26)
 - 총 매출액은 2011년 대비 12.1% 증가한 2조 7,478억원이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1년 대비 15% 증가한 17억원
 - 매출액 1억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859개로 전체 사업자의 53.2%,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해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그림 국내 이러닝 시장 규모(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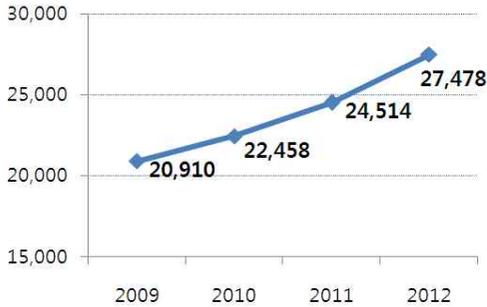


표 국내 이러닝 시장 구성 (2012년)

분야	매출규모 (억원)	증감률(%) (전년비)	
		증감률(%)	구성비(%)
서비스	19,956	18.9	72.6
콘텐츠	5,155	△4.2	18.8
솔루션	2,366	0.6	8.6
합계	27,478	12.1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3. 3. 26)

- 건전한 이러닝 생태계 구현을 위한 공정경쟁, 협업 강화가 필요
 - 중소 이러닝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닝사업 표준계약서의 보급, 적절한 수익 보장,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요구
 - 스마트러닝과 같은 신시장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공공 사업 추진 시, 적정 단가의 책정 등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라. 세계 IT Spending 전망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IT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세계 IT Spending, 2012년 대비 4.1% 증가(Gartner, 2013. 3. 28)
 - 2013년 세계 IT Spending 규모는 3조 7,66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예산 구조가 PC→모바일 폰, 서버→스토리지, 라이선스 SW→클라우드(SaaS), 유선→무선으로 전환 중

- Device, 엔터프라이즈SW 영역이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
 - 스마트폰 확산, 빅데이터 활성화로 Device 부문과 Enterprise Software 부문이 전년 대비 각각 7.9%, 6.4% 증가
 - 엔터프라이즈 SW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DBMS와 데이터 통합 툴,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축소되면서 Data Center System에 대한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세계 IT Spending 전망(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Spending	Growth(%)	Spending	Growth(%)	Spending	Growth(%)
Devices	665	9.0	718	7.9	758	5.7
Data Center System	141	1.9	146	3.7	152	4.0
Enterprise Software	279	3.5	297	6.4	316	6.7
IT Services	878	1.5	918	4.5	963	4.9
Telecom Services	1,655	-0.4	1,688	2.0	1,728	2.4
Overall IT	3,618	2.1	3,766	4.1	3,917	4.0

자료: Gartner(2013. 3) <<http://www.gartner.com/newsroom/id/2394415>>

2.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가. SW 생산액 분석

□ 2012년 SW생산액은 총 31조1,545억원으로 2011년 대비 6.4% 증가

표 월별 SW 생산액 추이(단위: 억 원) *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합계
패키지 SW	'12년	3,003	3,273	3,855	3,151	3,325	3,757	3,262	3,122	3,263	3,290	3,359	4,984	41,642
	'11년	2,668	2,769	3,163	2,915	2,851	3,211	3,147	2,964	3,109	2,979	3,158	4,528	37,463
	증감	12.5%	18.2%	21.8%	8.1%	16.6%	17.0%	3.6%	5.3%	4.95	10.4%	6.3%	10.1%	10.0%
IT 서비스	'12년	18,660	19,104	20,621	19,999	20,998	24,138	22,042	21,089	23,337	21,298	23,070	35,545	296,902
	'11년	17,334	17,949	20,789	19,022	20,675	21,911	19,961	19,785	21,978	20,365	22,546	31,770	254,086
	증감	7.6%	6.4%	-0.8%	5.1%	1.5%	10.2%	10.4%	6.6%	6.2%	4.6%	2.3%	11.9%	5.9%
합계	'12년	21,663	22,378	24,474	23,150	24,323	27,896	25,303	24,210	26,601	24,558	26,428	40,529	311,545
	'11년	20,002	20,718	23,952	21,938	23,526	25,122	23,109	22,750	25,087	23,345	25,704	36,298	291,549
	증감	8.3%	8.0%	2.2%	5.5%	3.3%	11.0%	9.5%	6.4%	6.0%	5.3%	2.8%	11.7%	6.4%

자료: KEA(2013. 1)

□ 2012년 SW수출액은 총 22억 4,140만 달러로 2011년 대비 57.2% 증가

표 월별 SW 수출액 추이(단위: 천 달러) *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합계
패키지 SW	'12년	20,220	21,817	25,824	26,505	45,568	66,174	75,704	84,032	91,667	111,481	121,016	122,405	812,413
	'11년	21,268	19,118	28,813	20,614	22,535	34,716	25,842	25,524	30,464	27,346	33,763	39,878	329,881
	증감	-4.9%	14.1%	-10.4%	28.6%	102.2%	90.6%	192.9%	229.2%	200.9%	307.7%	258.4%	206.9%	146.3%
IT 서비스	'12년	77,183	79,643	96,418	121,334	151,916	118,413	98,039	114,965	76,461	104,466	146,920	196,332	1,425,541
	'11년	73,115	72,381	91,267	88,603	85,983	84,449	80,921	92,827	57,949	100,338	100,772	133,327	1,065,506
	증감	5.6%	10.0%	5.6%	36.9%	76.7%	40.2%	21.2%	23.8%	31.9%	4.1%	45.8%	47.3%	23.2%
합계	'12년	97,403	101,460	122,242	147,839	197,484	184,587	173,743	198,997	213,293	215,947	267,936	318,737	2,241,406
	'11년	94,383	91,499	120,080	109,217	108,518	119,165	106,763	118,351	121,987	127,684	134,535	173,205	1,425,387
	증감	3.2%	10.9%	1.8%	35.4%	82.0%	54.9%	62.7%	68.1%	74.9%	69.1%	99.2%	84.0%	57.2%

자료: KEA(2013. 1)



Ⅲ. SW 시장 및 기업 동향

1. 패키지 SW 동향

가. 시스템 SW 시장 동향

법적 규제, 신종 보안 위협 대응, 보안 인텔리전스 활용, 통합보안 솔루션 제공, 모바일/클라우드 보안이 시장 주요 이슈

- 보안 SW²⁾ 시장, 2016년까지 연평균 8.2% 성장(IDC, 2013. 3. 18)
 - 2012년 상반기 보안 SW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1,192억원 규모
 - 콘텐츠 보안 및 위협관리 시장은 625억원 규모(9.2% 성장)
 - 내부정보유출 대응 강화, 신종 공격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 등이 주요인
 - 계정접근관리(IAM) 시장은 182억원 규모(8% 성장)
 - 금융권 보안투자 증가, 인터넷뱅킹 업그레이드, 모바일 banking 확대, 오픈 banking, 시스템 접근관리 등이 요인
 - 보안 및 취약점 관리 시장은 146억원 규모(6% 성장)
 - 보안관계 서비스를 위한 통합보안관리(ESM)의 수요 증가가 요인
 - 기타 보안(DB보안/서버OS 보안) 시장 규모는 238억원(24.7% 성장)
 -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
 - 2012년 연간으로는 2011년 대비 10.7% 성장한 2,884억원 규모

표 보안 SW 시장 현황(단위: 억원)



자료: IDC(2013, 3) <<http://www.idckorea.com/product/Getdoc.asp?idx=554&field=PressRelease>>

2) 콘텐츠 보안 및 위협관리, 계정 및 접근관리, 보안 및 취약점 관리, 기타 보안 시장으로 구분

나. 응용 SW 시장 동향

비용 절감, 단순성, 구축 시간 단축, 보안, 성능 향상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변화로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출시 증가

- 빅데이터 추출 및 분석 시장을 겨냥한 어플라이언스³⁾ 솔루션 출시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SQL서버 2012 PDW(Parallel Data Warehouse) 출시
 - 빅데이터 추출 및 분석 시장을 겨냥하여, 하둡을 통해 관리하던 비정형 데이터까지 추출 및 분석을 지원
 - (LGCNS)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일체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SBP 어플라이언스’ 출시
 - 쉽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고객 맞춤형 제품

-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관리시스템 어플라이언스 제품 출시
 - (아이티콤) 보급형 생산관리 솔루션 ‘스마트 iMES 어플라이언스’ 출시
 - 기존 패키지 생산관리 솔루션 대비 구축 비용을 1/5 수준 절감하여 중소기업 생산관리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SW 투자 지출에 있어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CRM 투자와 비용절감/자원 제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클라우드 투자가 주도할 전망

- CRM이 ERP를 제치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투자에서 최우선 순위로 부상(Gartner 기업 IT 지출 조사 결과)
 - 1위 CRM, 2위 ERP, 3위 개인 생산성 툴 순으로 나타남
 - 고객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것이 CRM 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북미, 서유럽, 신흥시장 등 지역에 관계없이 CRM에 대한 투자가 강조됨

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솔루션 제품

- SaaS/클라우드 관련 예산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북미지역 응답자의 60% 이상이 향후 2년 내 SaaS/퍼블릭 클라우드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응답
 - 타지역에서는 싱글테넌트인 호스트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아시아지역은 34%가 호스트형 애플리케이션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
 - 북미지역과 기타 지역의 SaaS/클라우드 투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통신인프라 및 보안 수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다. 임베디드 SW 시장 동향

임베디드SW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 및 IT 융합 시장 공략 차원으로 스마트카(자동차+IT) 시장 진출 가속화

- 시동, 실시간 차량 진단, 차선이탈 방지 등 운전분야(ECU), 스마트폰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 창출하는 인포테인먼트 분야까지 진출
 - (인포뱅크) 현대자동차 신형 산타페 모델에 ‘블루링크’, 기아자동차 K9 모델에는 ‘유보’ 솔루션 공급
 - 자동차 분야를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선정, 2010년 1.5%에서 2012년 4.2%(40억원)까지 증가, 2013년 106억원과 2014년 157억원의 매출 기대
 - (MDS테크놀로지) 내비게이션 기반의 미러링크 솔루션인 ‘네오링크’ 로 자동차 전장화 시장 공략
 - 자동차 분야 매출이 2010년 13%에서 2012년 30.6%까지 증가
 - (오비고) HTML5 기반 차량용 브라우저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용 웹 플랫폼 개발
 - 현대자동차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블루링크 라이프’ 와 기아자동차 ‘유보’ 의 차량용 웹브라우저를 상용화

라. 공개 SW 시장 동향

정보시스템에 공개SW 적용 시, 상용SW 사용 시의 TCO보다 63.3% 절감 가능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전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 상용 SW TCO(총소유비용) 비교 보고서 발간
 - 정보시스템에 공개SW 사용 시, 상용SW를 사용할 때보다 5년간 평균 3억 4,557만원 절감 효과 발생(상용SW 대비 63.3% 절감)
 - 상용SW의 총소유비용(TCO)는 연간 평균 5억 4,556만원, 공개SW의 총소유비용 연간 평균 1억 9,999만원
 - 공개SW와 상용SW 도입 기간 동안 투자수익률(ROI) 관점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SW 도입 전략 수립하는 것이 중요

표 공개SW와 상용SW 총소유비용(TCO) 비교 연구(단위: 만원)				
적용분야	상용SW TCO	공개SW TCO	공개SW 적용 시 상용SW 대비 절감액	공개SW 적용 시 상용SW 대비 절감 비율
정보시스템	54,556	19,999	34,557	63.3%
PC실	6,253	2,537	3,716	59.4%
클라우드컴퓨팅	40,333	15,653	24,661	61.2%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 12)

- 비용기술 트렌드-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이 공개SW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체크사항
 - 웹기반 시스템과 서버 운영체제, 웹애플리케이션서버 등 기반 인프라 부분에 도입 후 DB, DW 등과의 연계 및 기존 시스템과의 보안성, 호환성이 고려되어야 함
 - 모바일, 빅데이터, 가상화 등 신규 기술 트렌드에 공개SW 활용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점검과 공개SW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 조직, 조직 내 쉽게 융화될 수 있는 내재화 전략 수립이 필요
 - 전사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별 세부시스템 분석을 통해

공개SW 기반 업무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NIPA와 공개SW역량프라자 등의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통해 무료 컨설팅과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기업 핵심 영역에서의 리눅스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리눅스 관련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내 리눅스 사용, 3년 동안 증가세 지속(Linux Foundation)
 - 리눅스 재단 최종 사용자 위원회 회원 기업, 매출 규모 5억 달러, 직원수 500명 이상 기업 대상 조사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리눅스가 대표적
 - 리눅스서버 사용의 76%가 클라우드용, 74%는 클라우드 구상을 위해 리눅스 사용을 늘리거나 유지할 계획
- 리눅스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리눅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초기 배치에서 응답 기업의 75%가 리눅스를 배치
 - 응답 기업의 73%가 미션크리티컬 워크로드에 리눅스를 사용
 - 95%의 응답자가 리눅스의 중요성에 대해 변화가 없거나 더 전략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
 - 충분한 수준의 리눅스 전문인력의 확보가 향후 리눅스의 지속적 성장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

2. IT서비스 동향

IT서비스 시장 포화,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이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돌파구 모색에 주력

- 주요 IT서비스 업체들의 신사업(유통, 교통, 에너지, 교육, 물류 등) 진출 지속
 - 포화상태인 국내 환경과 각종 정부 규제에 따른 IT서비스 부문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
 - (SKC&C) SK엔카와 합병 발표(2012년 1월 SK엔카 자회사 편입)
 - 201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
 - (LGCNS) 교통결제시스템, 무인헬기, 전기차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진출 추진
 - (삼성SDS) 2012년 물류컨설팅 기업인 EXE C&T 인수로 IT 기반 물류사업 추진
 - 4PL 물류체계 구축, 해외 시장 확대, 성장동력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매출확대 · 신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브랜치⁴⁾ 시장을 놓고 IT서비스와 통신사 간 수주 경쟁 심화

- IT서비스 업체들은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략 강화
 - (LGCNS) KB국민은행과 SC은행 수주, SKC&C는 우리은행 수주, 노틸러스효성은 신한은행 수주
- 통신사들은 무인점포 서비스, 통신-금융 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공략 강화
 - (KT) IBK기업은행 수주, (SK텔레콤) 외환은행 수주

4) IT시스템을 활용한 셀프 거래를 목적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미디어월, 스마트거래시스템 등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지점

- 서비스 차별화, 은행 지점 확대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해 확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기존 점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현재 시범형태로만 운영 중
 - 정보보안 및 전산망 다운에 대한 불안감 해소, 은행 간 스마트브랜치 전략의 차별화가 확산을 위한 선결과제

표 스마트브랜치 사업 수주 현황

구분	벤더명	스마트브랜치 수주 고객
IT서비스	LGCNS	KB국민은행, SC은행(장비공급)
	SKC&C	우리은행
	노틸러스효성	신한은행
통신사	KT	IBK기업은행
	SK텔레콤	외환은행

자료: 각사 자료 취합

국내 RFP 작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IT관리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구가 제기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미국과 한국의 IT관리체계를 비교한 보고서인 「한미 IT관리체계 비교 보고서」 발간
 - 변경대가 지급, 합리적 예산 수립, 원격지 개발을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IT 관리체계를 한국의 관리체계와 비교해 한국IT서비스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제시
 - 미국식 IT관리체계의 장점
 -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EA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요구사항 도출체계
 - 요구사항 변경/삭제/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가격 견적의 변경이 용이
 - 요구사항을 작업분할구조(WBS) 방식으로 도식화하여 요구사항을 구체화
 -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사항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병행
 - 시스템 결정서(DSP), 비용견적보고서(IGCE), 경제성분석보고서 등 3가지 대안을 통해 예산편성당국에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추가 업무에 대한 지급이 용이

- 한국의 경우 부족한 사업관리 조직, 낮은 수준의 발주 프로세스 규정 준수도, 불합리한 가격체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자 분류체계 등 문제점 노출
- 글로벌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식 IT관리체계 기반의 RFP 작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표 미국의 IT관리체계와 한국의 IT관리체계 비교	
미국의 IT관리체계	한국의 IT관리체계
1. 사업관리를 위한 충분한 발주 조직	1. 역량 및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업관리 조직
2. EA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 발굴 체계	2. 낮은 수준의 발주 프로세스 규정 준수도
3. EA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 투자 관리 체계	3. 불분명한 제안요청서
4. WBS를 통한 요구사항 상세화	4. 제안가격 평가 및 변경관리와 동떨어진 가격체계
5. WBS를 바탕으로 하는 대가 견적 체계	5. 기능 인력의 분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자 분류체계
6. 획득계획(AP) 수립을 통해 구체화된 기획단계	
7. 상세한 제안요청서(RFP)를 통한 사업의 명확화	
8. 정보화원가견적(IGCE) 및 작업분할구조(WBS)를 기반으로 하는 미정보화사업 사업자 선정	
9. WBS와 EVMS를 기반으로 하는 변경관리체계	

그림 미국 IT관리체계가 미국 IT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자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2013. 3. 12)

3. 신사업 시장 동향

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중견·중소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사용자 관리, 비용 정산, 효율적 라이선스 관리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 제공

- 더존비즈온, 한국어도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디아이티 등을 중심으로 중견·중소기업(SMB)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
 - (더존비즈온) “2012 더존 스마트워크 솔루션 페어” 전국 투어로 홍보 실시, 전국 영업망에 클라우드 전담 인력 별도 배치
 - ERP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고객 확보가 주 목적
 - (한국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 정식 출시
 - 개인 멤버십(회원제)을 기반으로 데스크톱 툴과 함께 출판파일 공유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즉각적인 기능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협업 환경과 쇼케이스를 제공하는 창작 허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업용 ‘오피스365(Office365)’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발표
 - 사용자당 10개의 디바이스를 지원하며,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하지 않고서도 익스체인지, 셰어포인트, 링크 등의 제품을 사용
 -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된 라이선스 제공하여 비용에 민감한 창업 및 중소기업 고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디아이티)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비를 단일 랙상에 통합하고 호스트 운영체제와 게스트 가상머신, 통합관리 환경을 사전에 설정해 최적화시킨 ‘산타클라우드’ 발표
 - 서버 및 데스크탑 가상화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자동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초기 투자비용 절감, 관리 부담 축소, 외부 확장성 등의 장점으로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시스템 시장 활성화 전망

-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Video as a Service, VaaS)⁵⁾가 UC&C(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
 - VaaS는 초기 투자 비용 및 관리 부담이 적고(구축형 대비) 영상 협업 인프라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사용자들과도 쉽게 소통하고 업무 협력이 가능한 것이 장점
 - 전세계 클라우드 기반 영상 협업 시장이 2011년 410억 달러에서 2020년 2,410억 달러에 이를 전망(Gartner)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확산으로 이들 기기를 활용한 영상회의가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진화
 - 와이파이, 4G LTE 등 차세대 통신기술의 보급으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및 안정성 문제 해결, 소프트웨어 기반 영상 압축 기술의 발전이 배경

- Cisco, Polycom, Vidyo 등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제품 출시 증가
 - (Cisco) 클라우드(SaaS) 방식의 영상협업 솔루션인 ‘웹엑스’가 시장을 주도
 -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지원, Hosted Collaboration Solution 기능 확장, Cisco CloudVerse(구축, 운영, 관리, 지원 통합플랫폼) 개선을 통해 시장 영향력 강화
 - (Polycom) ‘리얼프레즌스 클라우드 액세스 스위트’ 출시
 - 리얼프레즌스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확장으로 웹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 많은 영상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B2B 및 B2C 사용자들까지 지원)
 - (Vidyo) 소프트웨어 기반 영상회의 솔루션 ‘비도웨이’를 출시하면서 시장 진입
 - 시스코, 폴리콤, 라이프사이즈, 마이크로소프트 등 서로 다른 영상회의 시스템과 UC솔루션, 데스크톱모바일 기기 등 엔드포인트와 관계없이 쉽고 단순하게 영상회의를 구현하는 것이 장점

5) 다자간 접속장치, 콜 컨트롤 장치 등 고가의 영상회의 인프라장비를 서비스 사업자가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고객은 영상회의 단말 장비를 구매하거나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

나. Mobile Computing

모바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생태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모바일 앱 개발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모바일 플랫폼 기업, 앱 개발자 확보에 주력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들이 자사 중심의 모바일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앱 개발자 확보에 주력
 - 모바일 앱 개발 경진대회, R&D 인프라 지원, 현금 지급, 창업 지원, 연구소 설립 등 모바일 개발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동원
 - (Microsoft) 현금지급 프로모션과 Office Hours 프로그램 운영
 - 윈도우8과 윈도우폰 앱 개발자에게 최대 2,000달러 현금 지급(6월 말까지, 앱당 100달러, 최대 20개 앱 등록 가능, 18세 이상 미국 거주 개발자 한정)
 - Office Hours: 윈도우 앱 개발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가 교육과 무료인벤트, 샘플 앱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Blackberry) 안드로이드·iOS용 앱을 블랙베리10으로 포팅하면 100달러 지급
 - 2012년 말에는 ‘1만 달러 보장’ 이벤트로 1년간 1,000달러 수익을 내면 나머지 수익을 보상해주는 프로그램 진행
 - 남아프리카공화국(학생·스타트업·창업가의 개발·마케팅·판매 지원), 이집트에 앱 개발 연구소 설립
 - (Facebook) 모바일 앱에 광고를 탑재할 수 있는 ‘광고 생성 플랫폼’ 공개
 - 앱 개발자가 모바일 앱에 광고를 싣거나 배포함으로써 수익 향상 지원
 - (Google) 멀티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크롬 웹스토어’ 제공
 - 한 번 개발로 윈도우맥리눅스 등 다양한 OS 지원하여 앱 개발자가 앱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중국, 인도 등 앱 개발 스타트업과 개발자 확보에도 관심

**자동차의 편리성, 안정성,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고부가 IT 기반 자동차 개발 증가**

- 자동차와 IT 및 모바일 기술의 결합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
 - 주니퍼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거의 모든 차량이 앱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 선호 패턴 변화에 따라 JD파워, 컨슈머리포트 등 평가기관들도 자동차 콘솔 시스템과 앱 선택 부문을 평가 항목에 반영
 -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자동차에 컴퓨터와 무선센서 등을 장착해 모바일 기기처럼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상황과 날씨, 안전기능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중
 - (Ford) 개방형 개발자 프로그램인 포드 개발자 프로그램(Ford Developer Program)을 통한 모바일 앱 개발, GENIVI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앱 개발 착수
 - (Audi) ‘아우디 커넥트’ 로 온라인 교통정보 시스템, 음악 스트리밍,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 제공, 구글과 3년 내 100만대 커넥티드 카 생산 계획
 - (Nissan) 실리콘밸리 현지 기업과 스탠포드.버클리 대학 등과 공동으로 셀프-드라이브 카와 커넥티드 카 개발에 착수
 - (Toyota) 실리콘밸리 연구소 오픈, IT 기업과 공동으로 자동차용 데이터.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연구 진행
 - (Ferrari) 애플과 공동으로 커넥티드 카 개발 착수, 시리 및 아이패드 미니가 장착된 인포테인먼트 제공
 - (GM) 4G LTE 기반 고속 와이파이를 적용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계획
 - (Porsch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의 커넥티드 카 출시 계획

다. Social Computing

마케팅, 영업 기회 확대, 매출 창출, 직접적인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지원까지 고객 접점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추구 목적으로 소셜 비즈니스 도입

- 소셜 도구/소셜미디어/소셜방식을 조직 운영에 도입하는 소셜 비즈니스⁶⁾ 중요성 증가
 - 1,100명의 비즈니스 경영자 중 46%는 2012년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62%는 향후 3년 동안 지출을 늘릴 계획(IBM)
 - 소셜 비즈니스 도입 분야는 마케팅(67%), 홍보(54%)이며, 향후 2년 동안 고객 서비스 부문(38%→54%), 영업 부문(46%→60%) 확대 예상

- 고객 만족도 향상,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혁신 가속화가 소셜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영역
 - 문화적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 소셜 비즈니스의 영향력에 대한 파악 부족, 개방성과 투명성 증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등이 소셜 비즈니스의 문제점으로 분석

그림 전사적 소셜 비즈니스 적용 영역



자료: IBM 기업가치연구소, <http://www-07.ibm.com/services/kr/gps/documents/The_business_of_social_business_ko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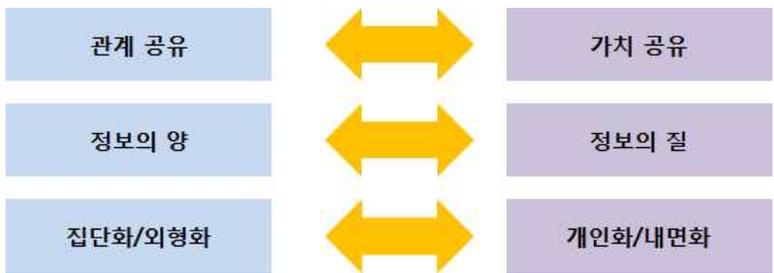
6) 소셜비즈니스: 조직 내외부를 막론하고 조직 전반에서 협업과 커뮤니티의 정신을 받아들여 장려하는 비즈니스로 적극적인 참여, 투명성, 신속성의 특징을 가짐

관계 공유에서 가치 공유 중심으로, 정보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이용자 패턴 변화로 특정 관심사나 정보를 제공하는 특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

- 특정 주제에 특화된 다양한 니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장 활성화
 - 관심(취미), 위치, 지역커뮤니티, 소규모 관계, 동영상, 큐레이션 커머스, 뉴스 큐레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특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
 - 특정 관심사 혹은 이용자 층을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참여자 간 관계보다는 관심과 전문적인 주제에 초점

- 메이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계 공유, 정보의 양, 집단/외형화와는 대조되는 가치 공유, 정보의 질, 개인/내면화의 특징을 가짐
 - 특정 이용자가 관심을 두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거나 공유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소셜 큐레이션, 소셜 웨어링이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로 부상

그림 메이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vs. 특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상에서 협력적인 소비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유 경제로 진화
 - SNS를 통해 참여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교환(소통)하면서 보다 능동적인 참여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기존 생산자↔소비자 이원적인 시장 모델에서 프로슈머↔프로슈머로서의 N:N의 다차원적인 시장 모델로 진화

라. 빅데이터(Big Data)

국산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통해 외산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고 빅데이터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 개발을 추진

- 국내 중소 SW 기업 공동으로 빅데이터⁷⁾ 플랫폼 개발
 - 빅데이터 수집·분산 처리·저장·분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모듈화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개발
 - 대보정보통신, 데이터스트림즈, 이씨마이너, 솔트룩스, 큐보로, 빅스터 등 참여
 - 공개솔루션(하둡⁸⁾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과 자체솔루션 기반 플랫폼 등 2종류(정형+비정형) 플랫폼 개발

- 각사의 역량 강점을 기반으로 공동 협력 개발 진행
 - 비정형 데이터 수집은 솔트룩스와 큐보로, 정형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스트림즈와 빅스터, 빅데이터 분석은 이씨마이너가 참여(수익은 공동분배)
 - 각 분야별 강점을 가진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에 의의
 - 각 사 솔루션을 통합하여 최상의 퍼포먼스를 도출하여 외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벤치마킹테스트를 통해 비교·검증하는 것이 숙제

- 고객 및 레퍼런스 확보에 주력
 - 솔루션 무료 제공+분석 비용 수수 모델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활용(교통량 및 도로 위험 파악 및 분석)에 대해서도 협의 중

7)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역량을 넘어 데이터셋(Dataset) 규모, 데이터량 기준에 대해 산업분야에 따라 상대적이며, 현재 기준에서는 몇십 테라바이트에서 수페타바이트까지 범위에 해당

8)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원래 넷츠의 분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아파치 루씬의 하부 프로젝트임. 분산파일시스템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처리시스템인 맵리듀스(MapReduce)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



자료: 대보정보통신

빅데이터 전략, 기술,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 발굴, ROI 특정 방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 2013년 기업의 빅데이터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Gartner)
 - 전세계 IT 리더의 42%가 빅데이터에 투자했거나 올해 안에 빅데이터에 투자할 계획
 - 2015년 글로벌 1,000대 조직의 20%가 애플리케이션 관리와 같은 수준의 정보인프라스트럭처에 초점을 맞춘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
 - 2015년에는 글로벌 1,000대 조직의 20%가 애플리케이션 관리와 같은 수준의 정보 인프라스트럭처에 초점을 맞춘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
 - 2016년까지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의 70%가 실시간 예측 분석이나 최고 수준의 협업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
 -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에 한 가지 이상의 실시간 분석 서비스나 분석 방법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일부 산업군 중심의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산업군으로 확대 예상
 - 대부분의 조직들은 초기상태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 조직들은 전사적 접근 방법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처, 조직, 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실현

- 데이터 소스, 기술, 실행 등으로 할 수 없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서 빅데이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
-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이메일, 멀티미디어, 기업용 콘텐츠 등과 같은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운영·공공·상업적·소셜데이터 등 풍부한 데이터와 정보 관리를 기반으로 보안·리스크·구매·수집·사용·교환·생산·처분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분석됨
-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관리, 복잡한 이벤트 프로세스, 룰 관리, 데이터 시각화, BPM, 데이터 최적화 등이 필요

4. 주요 산업 SW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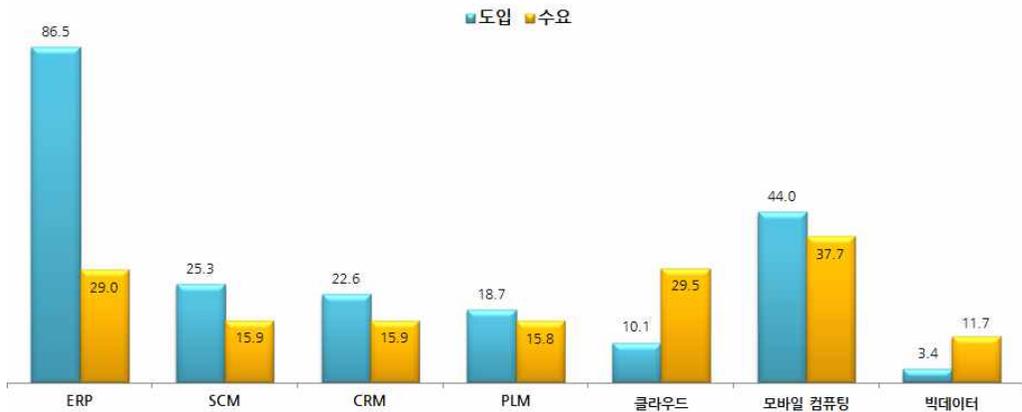
가. 제조

경영효율화, 비용절감을 위한 Extended ERP,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솔루션 도입에 투자 확대

- 통합시스템 구축 이후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솔루션에 대한 투자 수요 증대
 - ERP 통합 이후 SCM, CRM, MES, PLM 등의 확장 솔루션 통합을 통한 Extended ERP 구축에 주력

-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솔루션 수요 확대
 - VDI⁹⁾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SaaS 솔루션의 도입이 확대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DW 등 인프라 구축과 BI 고도화에 관심 증대

그림 제조업 솔루션 도입 및 수요 현황(단위: %, 207개 기업 대상 조사)



자료: KRG(20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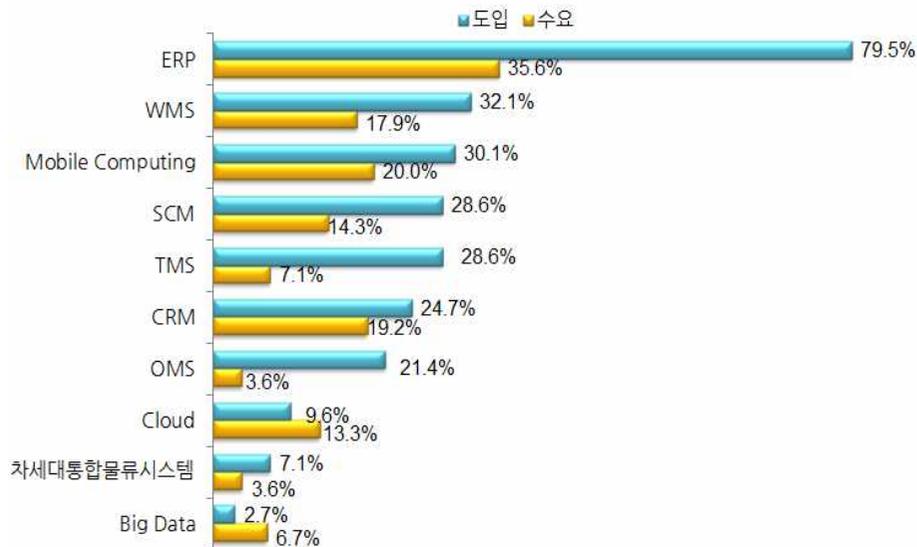
9)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란 Display 기능만을 탑재한 Thin/Zero Client를 통해 서버에 접속, 데이터의 중앙 관리 및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구성되는 데스크톱 인프라

나. 서비스/통신/방송

(유통/물류) 효율적 자원관리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물류통합시스템,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솔루션 투자에 집중

- 시스템 통합, DB분석 솔루션, 신규 사업 지원 솔루션에 대한 투자 확대
 -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물류통합시스템 구축(ERP, SCM, WMS, TMS 등)과 스마트기가·유통구조 변화·채널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CRM 고도화 빅데이터에 관심
 - 신규 사업·사업 다각화를 위한 클라우드 및 모바일 솔루션 투자도 확대

그림 유통/물류업 솔루션 도입 및 수요 현황(단위: %, 55개 기업 대상 조사)



자료: KRG(2013. 2)

(통신/방송)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분석, 유무선 플랫폼 통합,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제, DRM 도입에 초점

- 빅데이터 분석, 유무선 플랫폼, 보안 솔루션에 대한 투자 확대
 - 비정형 데이터 및 모바일 콘텐츠 증가에 따른 비정형 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
 - 유무선 플랫폼 통합 및 모바일 플랫폼 개발에 대한 투자 지속
 - 정보보호 및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제, DRM 등에 초점

다. 금융

DDoS 및 해킹 대응을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금융지주 및 바젤III 대응을 위한 리스크관리 도입, 차세대e-뱅킹, 스마트브랜치 관련 스마트 금융, 빅데이터 도입 및 고도화에 주력

- 보안 침해사고 예방, 스마트 금융 감독 강화,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솔루션 투자 활발
 - (은행) 보안(망분리·VDI·SBC), 리스크관리(금융지주 바젤III 대응), 스마트 금융(차세대 e-뱅킹, 스마트브랜치), 빅데이터(CRM·EDW·BI) 고도화 순으로 수요 집중
 - (보험) 보안 시스템 강화, 리스크관리 시스템 강화, 빅데이터(CRM·EDW·BI) 고도화, 스마트금융 IT 인프라 고도화(신채널 구축 및 고도화), 차세대시스템 고도화 순으로 솔루션 투자 주력
 - (증권) 리스크관리, 보안 시스템 강화, 스마트금융 IT 인프라(모바일 자산관리, 스마트금융), 빅데이터(CRM·EDW·BI) 고도화, 차세대시스템 고도화 순으로 솔루션 수요 발생
 - (카드/캐피탈) 보안 시스템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컴플라이언스 대응),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빅데이터(CRM·EDW·BI) 고도화, 스마트 금융 IT 인프라(모바일 결제) 순으로 솔루션 수요 발생
 - (공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전산센터 지방 이전 및 재구축, 모바일 오피스 고도화 및 IPT 도입, 보안시스템 고도화(망분리·VDI·SBC), 차세대시스템 구축 순으로 솔루션 수요 발생

5. SW 기업 동향

가. 신제품·서비스 출시 동향

기업명	내용
LG엔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스마트렌더 ▪ 출시일: 2013. 3. 6 ▪ 제품 개요: 렌더링¹⁰⁾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받는 서비스
투비소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엑스플랫폼 13 ▪ 출시일: 2013. 3. 28 ▪ 제품 개요: 운영체제, 브라우저, 디바이스에 독립적이며, 추가 개발 없이 동일한 UI·UX를 제공하는 플랫폼
인프라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폴라리스 오피스 엔터프라이즈 ▪ 출시일: 2013. 3. 26. ▪ 제품 개요: 기존 폴라리스 오피스에 모바일 생산성 향상과 문서 보안 기능이 더해진 기업용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
큐브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큐브리드 9.1 ▪ 출시일: 2013. 3. 18. ▪ 제품 개요: 대용량 분산처리를 위한 ‘샤드’ 기능과 분석함수 추가 분할 기능 개선으로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픈소스 DBMS
펜타시큐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마이디아모 ▪ 출시일: 2013. 3. 4. ▪ 제품 개요: MySQL 엔진 기반의 DB암호화 솔루션으로 국제 표준 알고리즘 지원, 패스워드 암호화를 위한 단방향 암호화 등 DB암호화 기술 반영한 오픈소스 DB암호화 솔루션

자료: 각사 보도자료 정리

10)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화상에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더하는 작업, 광원·위치·색상 등에 사실감 부여하는 것이 특징(괴물, 아바타 등의 영화가 대표적 작품)

나. 해외 진출·국내 시장 진입 동향

1) 해외 시장 진출

- (이미지넥스트) SVM(Surround View Monitoring) 제품인 ‘360° 옵니뷰’ 와 LDWS(차선이탈방지 시스템)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
 - 미국 시장 마케팅 파트너인 JVIS USA 와 판매 계약 체결, 전기자동차와 특수차량 전장업체를 대상으로 ‘360° 옵니뷰’ 2만개 공급과 북미 시장 매출 100억원을 목표

- (SK플래닛) 오픈마켓 ‘n11.com(누마라 온버르, www.n11.com)을 런칭하면서 터키시장 진출(터키 도우쉬그룹과 공동)
 - 터키 이커머스 시장은 2012년 기준 170억 달러, 2018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이 예상됨

- (SKC&C) 차이나유니콤페이의 ‘모바일 월렛(지갑) 솔루션 공급 사업’ 수주를 계기로 중국 모바일 커머스 시장 진출 본격화
 - NFC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기능 구현을 통해 온라인 결제 뿐 아니라 오프라인 휴대폰 결제기능까지 지원
 - 중국법인 ‘SK C&C Systems’ 내 중국 모바일 커머스 사업 발굴- 수행 조직을 강화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

- (피스페이스) 일본 IT솔루션 기업 CEC와 제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비즈비전 유스토리지’ 로 일본 시장 진출
 -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인피니스토어’ 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플랫폼(CSSP) 제공
 - CEC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운영인력 등을 포함하는 전체 서비스 인프라와 일본 내 영업·마케팅을 담당(LGU+ 웹하드 일본 서비스 담당)

표 **국내 SW 기업 해외 진출 현황**

기업명	진출지역	제품/서비스	진출 내용
이미지넥스트	미국	360°옵니뷰/ LDWS (차선이탈방지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시장 마케팅 파트너인 JVIS와 판매 계약 체결 전기자동차와 특수차량 전장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공급 계획
SK플래닛	터키	오픈마켓 런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키 도우쉬 그룹과 공동으로 nll.com을 런칭하면서 터키 이커머스 시장 진출
SKC&C	중국	모바일 월렛(지갑)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이나유니콤페이의 모바일 월렛(지갑) 솔루션 공급사업 수주 중국법인 조직 강화, 다양한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 서비스 사업 추진
피스페이스	일본	비즈비전 유스토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IT솔루션 기업인 CEC와 제휴 CEC는 전체 서비스 인프라와 일본 내 영업·마케팅을 담당

2) 국내 시장 진입

- (솔레라네트웍스, 美) 한국총판 ‘패트로누스’ 를 통해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 ‘딥씨(DeepSee)’ 공급
 -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와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및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Qwilt, 美) 비디오 캐싱 전문업체로 한국 지사 설립
 - 동영상 최적화 전송 기술을 가진 업체로 비디오 전송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단일 소프트웨어에 통합한 솔루션이 강점
 - 국내 통신사 및 포털사에 솔루션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NHN은 이미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용 중

- (Facebook, 美) 인터넷 음성 통화(VoIP) 국내 확대 적용
 - 캐나다와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하던 무료 인터넷 음성 통화(VoIP) 기능을 국내에도 확대 적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출발, 메시지와 음성통화까지 포괄하는 종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발전
 - 카카오톡과의 경쟁 및 이동통신사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

- (Microsoft, 美) 국내 기업용 소셜 시장 진출
 - 협업 플랫폼(셰어포인트)에 기업용 SNS(야머)를 결합한 엔터프라이즈 소셜 서비스 전략 공개(메일-익스체인지, 메신저-링크도 결합)
 - 별도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고도 기존의 협업 플랫폼 또는 오피스 기반 위에 엔터프라이즈 소셜 플랫폼 추가 가능

다. SW 기업 협력·제휴, M&A 동향

1) 협력·제휴

- (Facebook) 국내 스마트폰 게임 업체들과 잇단 접촉
 - 선데이토즈, 파티스튜디오를 비롯 독립 개발사들과 페이스북 상에서 게임 마케팅, 홍보, 결제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
 - 5월 7일 한국 기업을 포함한 모바일·캐주얼·코어 장르 주요 게임 개발사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페이스북 아이디를 활용, 앱 상호 홍보를 통한 크로스 플랫폼 프로모션 도구의 개선, 페이스북 친구관계를 반영한 ‘오픈 그래프’의 모바일 확대 적용 등 개발사 지원 정책이 포함될 전망

- (롯데정보통신-티맥스소프트)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MOU 체결
 - 롯데정보통신, 티맥스소프트의 미들웨어 제품군(제우스)과 티베로의 RDBMS 제품(티베로)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 담당

- (펜타시큐리티시스템-중외정보기술) 의료정보시스템 DB보안 시장공략 제휴
 -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의 DB암호화 솔루션인 ‘디아모’와 중외정보기술의 종합의료정보솔루션인 ‘CI OCS/EMR’을 결합하여 중소형 병원 시장 공략
 - 의료정보 솔루션에 특화된 제품 공동 개발, 제품 영업 및 기술지원체계 협력, 공동 마케팅 및 홍보, 시장 요구사항 반영한 제품 설계 등에 합의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 콘텐츠 사업 협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윈도 애저의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게임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들의 글로벌 서비스 환경 구축 지원
 -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모바일 광고 플랫폼(애드팍콘)을 이용한 마케팅 방안 지원

2) M&A

- (Oracle)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님블라 및 테켈렉 인수(2013. 3. 13, 2013, 3, 26)
 - (님블라)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 및 서비스 품질, 가용성 관리를 도와주는 기술 및 제품 보유
 - (테켈렉) 네트워크 신호, 정책 제어,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가입자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

- (EMC-IBM)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 업체인 소프트웨어 인수戰
 - (소프트레이어)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 데이터센터를 구축(13개 데이터센터)하고 아마존웹서비스(WAS)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아시아지역은 2011년 홍콩, 도쿄, 싱가포르를 잇는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
 - 소프트웨어의 플렉스이미지(기존 서버 운영 환경을 포착해 복제하고 저장한 다음 다른 서버에서도 이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 기술에 관심

- (요즈마그룹, 이스라엘) 한국사무소 설립 추진, 정부민간 결성 펀드 자문 계획
 - 요즈마펀드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1억 달러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벤처캐피털 산업 기반과 스타트업 환경 조성에 참여

라. 인증 및 지식재산권 동향

-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인증제 시행
 -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우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SW전문기업인증제’ 시행
 - 인증제 도입으로 발주자의 정보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국산 SW 신뢰성과 SW전문기업의 전문성, 글로벌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MDM 솔루션 국제공통평가기준(CC) 평가인증 규격 상반기 추진 계획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IT보안인증사무국)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MDM 등) 보안 요구사항 설명회를 통해 업계 의견 수렴
 - CC인증 규격 대상 모바일 운영체제와 CC인증규격 대상 단말기 등을 논의
 - CC인증규격이 제정될 경우, 보안을 이유로 스마트워크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프로토마, ‘시맨틱웹 구축 솔루션’ GS인증
 - 의미 기반 지식정보솔루션으로 시맨틱 검색과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프로 리즈너(Pro-Reasoner) v2.0 GS인증 획득

- 소프트워드솔루션, ‘CrossNet Suite’ EAL2 등급의 국내용 CC인증 획득
 - ‘CrossNet Suite’ 는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인 ‘CrossNet Data Transfer’ 제품과 망간 스트림연계를 지원하는 ‘CrossNet Secure Tunnel’ 제품으로 구성

- 슈프리마, ‘지문인식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적응적 이미지 획득 및 처리’ 특허 획득
 - 지문 입력창의 상태에 상관없이 고품질의 지문 영상 취득이 가능해 지문입력 장치와 시스템의 인식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IV.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가. 미래창조과학부(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87개 신규 표준화 연구과제 발굴(2013. 3. 6)
 - 국가R&D와 국제표준 동시 개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2013년도 87개 신규 표준화 연구과제에 대해 국제 표준화 추진
 - 국가 R&D 성과물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실용화 촉진과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중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는 10개 과제에 대해 국제 표준화 추진
 - 표준화 과제의 일정부분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도록 규정
 - 표준화 패러다임이 정부나 대기업 주도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반영
 -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은 신규 55개 과제 중 15% 이상,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은 21개 표준화 연계과제 중 10개 과제의 주관기관을 중소·중견기업으로 규정

표 2013년도 표준화 연계과제 공고 목록(정보통신 분야)		
구분	표준화 연계 과제	비고
지식서비스	국제대회급 스포츠이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중소·중견기업 주관
홈네트워크/ 정보가전	기기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의 환경, 감성, 인지정보에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정보가전용 원격 UI 기술 개발	주관기관 제한 없음
DTV/방송	웹오브젝트 기반의 다중 통합 촬영 시스템 기술 개발	주관기관 제한 없음
차세대 이동통신	Local Access 효율 증대를 위한 다중셀, 다중 무선만 협력기술 개발	주관기관 제한 없음
네트워크	하향 40Gbps 및 상향 10Gbps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수동형 광가입자망 시스템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주관

SW	빅데이터 이해 기반 자가 학습형 지식베이스 및 추론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주관
	자율지능형 지식/기기 협업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주관기관 제한 없음
	고속(2Gb)의 네트워크 패킷 디코딩과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을 통해 사용자 체감 성능 측정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성능관리 솔루션 개발	중소·중견기업 주관
차세대컴퓨팅	적응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서버당 100Gbps I/O로 백만 사용자를 지원하는 가상 플랫폼 기술 개발	주관기관 제한 없음
스마트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 긴급 제동(AEB) 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주관기관 제한 없음

자료: 지식경제부(2013. 3. 6)

나. 안전행정부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개최(2013. 3. 6~2013. 3. 8)

- 안전행정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부문 발주자협의회, 한국 CSO(Chief Security Officers)¹¹⁾가 공동으로 주관
- 정부/공공기관 IT 업무 담당자가 정보보호 솔루션을 직접 비교·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정책 방향, 최신 보안기술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는 제품 전시와 컨퍼런스 개최
-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사이버 공격 동향과 정보보호 주요 정책을 비롯, 분야별 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사례 등 총 9개 트랙, 40개 강연이 진행

11) 한국CSO협회(Chief Security Officer): 민관 정보보호 책임자들로 구성된 협회

다.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과금서비스¹²⁾ 이용자 보고 개선 대책」 발표 (2013. 3. 14)
 - ‘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이벤트로 유인 후 유료 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본인 인증과 가입비 결제 인증 동시 진행)’ 등의 민원 지속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스미싱¹³⁾)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급증
 - 법 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개선 대책 마련
 - 법제도 개선: 명의적 동의자에게만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운영규정 마련을 통한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통신과금 이용 세부사항 명시를 위한 약관 개선
 -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안전 조치 강화, 실시간 결제 분석을 통한 비정상 결제 차단, 스캠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악성코드 배포 방지
 -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통신과금 위해요소 공동대응 체계 구축,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이해 증진

라. 국토해양부

- 공간 융합정보 생성 기술/업무모델 특허 무상 공유 추진(2013. 3. 19)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정보 융합방법」에 관한 BM 특허를 등록하여 공공분야와 민간 산업에 무상으로 공유
 - 단절된 지적과 건축 인허가의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방법을 “공간정보(GIS)” 상에 “설계도면(CAD)” 를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한 특허

12) 통신과금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보편적 결제 수단(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13) 스미싱(SMS피싱): 공짜 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결제 정보를 빼돌려 이용자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함

- ‘일사편리’ 라는 브랜드로 2012년 12월 상표등록 완료
- 공간정보 기반 행정 고도화,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공간정보 해외 진출 지원, 공간 빅데이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문화체육관광부

- 2013년 1,893억원의 콘텐츠펀드 신규 조성(2013. 3. 14)
 - 모태펀드의 문화·영화 계정을 통해 1,893억원의 콘텐츠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
 - 현재 9,014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추가 펀드 조성을 통해 연내 모태펀트를 통한 콘텐츠펀드 조성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전망
 - 문화계정 신규예산 300억원, 글로벌콘텐츠 분야 출자예산으로 이월된 400억원, 기존 자조합 청산에 따른 회수금 180억원 등 총 880억원 출자하여 5개 분야에 1,750억원 내외의 펀드 조성 추진
 -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글로벌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2차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1,000억원 규모의 단일 펀드로 조성하되 해외자본 유치 조건 등을 완화하여 추진할 계획
 - 애니·캐릭터·만화(200억원), 재무적 출자자 매칭(200억원), 제작 초기 단계(200억원),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143억원)를 정책적 육성 분야로 선정 총 743억원 규모의 중점 펀드 조성
 - 신규 분야로 창작뮤지컬, 패션 등 콘텐츠산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투자가 미약한 분야에 대해 수시펀드(150억원) 조성을 검토할 계획

2. 해외

- EU, 디지털 일자리 대연합(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 런칭 발표 (2013. 3. 4)
 - 유럽 내 디지털 일자리(IT 인력) 수급 환경 개선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자간 협력 기반 마련이 주목적
 - 5개 핵심 영역에 대한 정책 활동 추진
 - 디지털 일자리 훈련·매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 교육 및 인재 매칭
 - 모빌리티: 지역별로 다른 디지털 인력의 부족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기술 인력 지원
 - 인증: 국적에 관계없이 기술을 가진 인재에 대한 자격 증명
 - 인식 제고: 남녀 모두에게 적절한 보수와 즐거운 직무 환경 제공
 - 혁신적인 학습과 교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확장 및 향상

참고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3-182_en.htm

- 美, 2015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이버안보 전담팀 구축(2013. 3. 12)
 - DoD(Department of Defense), 사이버전쟁 테러에 대비해 2015년 말까지 ‘사이버안보부대’를 현재의 900명에서 2015년까지 4,9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
 - 적국의 지휘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부대 창설까지 포함
 - 사이버사령부 산하 3개 조직을 2015년까지 100개 이상의 팀으로 구성, 군사네트워크 방어·적대자시스템의 공격에 선제 대응할 계획
 - 미국 사이버사령부 산하 국가작전팀(NMF¹⁴), 전투작전팀(CMF¹⁵), 사이버보호팀(CPF¹⁶) 등 3개 조직으로 구성

14) National Mission Forces

15) Combat Mission Forces

16) Cyber Protection Forces

- 사이버보호팀: 60개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며, 미국 국방 네트워크를 보호
- 국가작전팀: 13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교통시스템발전소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주요 인프라의 전산망을 방어하고 추가적으로 공격 역할도 함께 수행
- 전투작전팀: 27개 팀으로 구성되며, 적의 전산망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적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임무 수행
- 사이버안보보대는 미국 국방부와 민간 IT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2013년 9월까지 1차로 총 인력의 30%에 해당하는 인력을 선발할 계획

□ 美,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새로운 온라인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2013. 3. 12)

- 2005년 5월 발표된 온라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com Disclosures: How to Make Effective Disclosures in Digital Advertising)
 - 스마트폰, 태블릿PC,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 광고 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 주요인
- 현행 광고법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
- △ Proximity and Placement, △ Hyperlinking to a Disclosure, △ Using High Tech Methods for Proximity and Placement, △ Displaying Disclosures Prior to Purchase, △ Evaluating Proximity in Space-Constrained Ads, △ Prominence, △ Distracting Factors in Ads, △ Repetition, △ Multimedia Messages and Campaigns가 기존 광고법을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8가지 요소

참고자료: <http://ftc.gov/os/2013/03/130312dotcomdisclosures.pdf>

□ 美-EU, e-Health 분야 협력체제 구축 로드맵 발표(2013. 3. 15)

- 美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EC 집행위원회 산하 통신·네트워크·콘텐츠 기술 총국(DG CONNECT)에서 공동 추진
 - eHealth 분야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범대서양 e-Health/Health IT 협력 로드맵’ 에 합의
- 향후 18개월 간 eHealth 상호운용성 확보 및 eHealth 전문인력 개발 등 2대 우선 추진분야에 초점을 맞춘 협력 활동 추진
- 상호운용성 확보: EU와 미국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 수립(2013. 3월까지) 및 EHR(전자의무기록) 상호운용성 확보(2014년 9월까지) 추진
- eHealth 전문인력 양성: EU와 미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액션 플랜 수립(2013년 5월까지), 상호 인정되는 eHealth 자격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 (2014년 2월까지)

참고자료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newsroom/cf/dae/document.cfm?doc_id=1787



V. 월간 SW 이슈 분석

1. 주요국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ICT 활용

가. 개요

- 세계적으로 자연 재해·재해가 급증하면서 막대한 피해 발생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는 11만 2,493명(유엔 국제방재사무국, 국제방재백서 2011)
 -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사망자 수 4만 8,890명의 2.3배
 -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손실액이 높은 반면,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 발생

표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	
국가명	피해 내용과 규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난: 고베대지진(1995년), 동일본대지진(2011년) ▪ 피해 규모: 경제적 손실 4,020억 달러(480조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난: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년) ▪ 피해 규모: 5,600억 달러(650조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난: 2007년 대홍수 ▪ 피해 규모: 경제적 손실 32억 유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난: 쓰촨대지진(2008년) ▪ 피해 규모: 3,310억 달러(380억 원)
아이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난: 아이티대지진(2010년) ▪ 피해 규모: 사망자수 23만여명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난: 인도네시아 쓰나미(2004년) ▪ 피해 규모: 18만 5천여명

자료: UN 재난경감국제전략기구(ISDR), 2012

-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기상이변 및 환경오염과 지질활동(지진)으로 재난 및 재해의 대형화·집중화·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 재난·재해를 조기에 탐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재해·재난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난 대응 로봇통신망, 센서 기반 감지 시스템,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모바일을 이용한 예경보 서비스, 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시스템 등

나.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ICT 기술

□ 재난 대응 로봇 기술

- 자연재해,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로봇
- 기계설계, 구동, 제어, 센서(메카트로닉스 기술)과 비전·센싱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네트워크 기술, 원격 제어(ICT 기반 기술) 등이 융합
 - 재난 대응 인력의 부족,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지속, 정치사회적인 재난 가능성의 증가로 재난 대응 로봇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다양한 재난대응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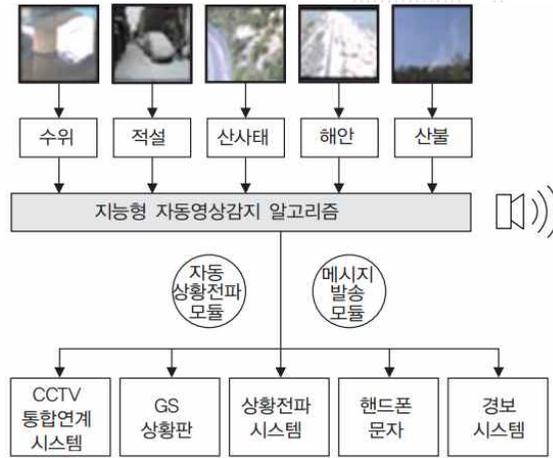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난대응 로봇의 개발 현황 및 전망」, 2011

□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

- 재해·재난 관리 객체에 센서를 부착하여 현황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정의된 상황 기준과 비교하여 조건에 맞을 경우 상황 정보를 알려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
 - 센서 기반의 재난 전조 감시 기술과 HD급 CCTV 기술이 융합
 - (소방방재청) ‘수위상승 자동감지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산불·산사태·해일·너울성파도·적설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CCTV 자동영상감지 알고리즘’ 개발 추진

그림 **지능형 자동영상감지 시스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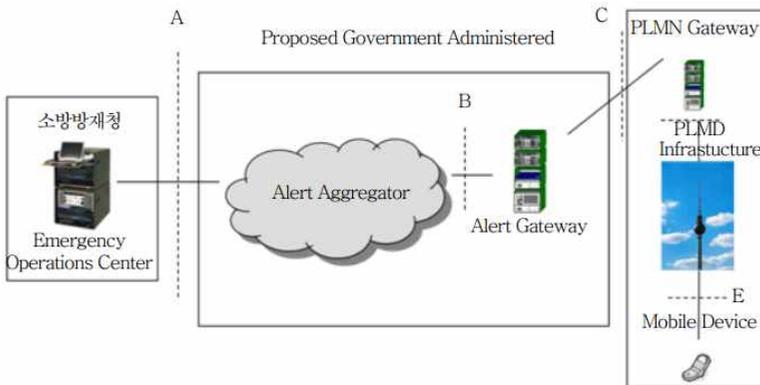


자료: 소방방재청

□ 모바일을 이용한 예·경보 서비스

- 재난·재해 발생 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해·재난의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방향 푸시 형태로 제공
 - 모니터링 서비스와 연계될 경우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라 예·경보를 자동으로 제공

그림 **LTE 재난문자방송망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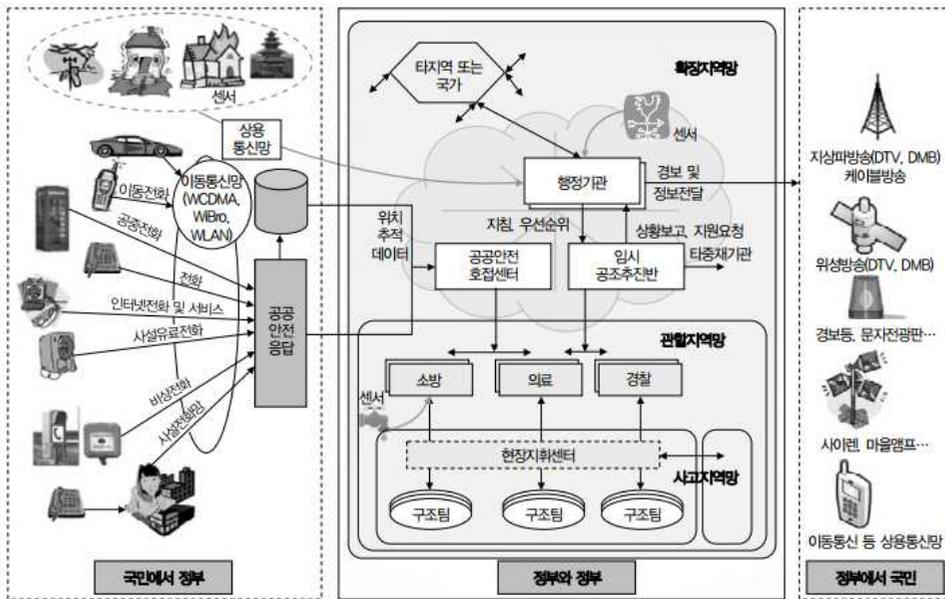


자료: TTA

□ 재난 안전 무선통신망

- 네트워크 망 구성 혹은 기술에 관계없이 복구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 내에 최소한의 장비로 간편하게 통신 연결성 확보가 가능
- 재난 현장의 통신소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TRS¹⁷⁾ 기반의 TETRA¹⁸⁾, iDEN¹⁹⁾이 사용됨

그림 재난 안전 무선통신망의 서비스 구조



자료: TTA

- 17) TRS(Trunked Radio Service)란 기존의 자가무전기를 발전시킨 시스템으로, 각 사용자가 하나의 주파수만 사용하던 기존 이동통신과는 달리 무선중계국의 많은 주파수를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이동통신
- 18)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란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에서 개발한 디지털 이동 무전 표준으로 응급 상황, 공익 사업, 운송 기관, 일반적인 상업용 사용자들의 전용 이동 무전기(PMR)와 공공 접속이 가능한 이동 무전기(PAMR)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된 기존의 아날로그시스템에 비해 훨씬 향상된 시스템
- 19) iDEN(inte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란 디지털 휴대 전화, 양방향 무선, 문자 페이지, 데이터/팩스 기능을 단일 통신망에 결합시킨 무선 솔루션. 800MHz, 900MHz, 1.5G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시분할 다중 접속(TDMA)과 GSM 구조에 기반을 둔 모토로라사가 개발 한 시스템

□ 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시스템

- 효율적인 재해·재난의 응급 대응을 위해 자연현상, 상황변화, 피해 발생에 대한 예측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
-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재해·재난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

그림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개념도



자료: 환경부

다. 주요국의 재해·재난을 대비한 ICT 활용 현황

1) 미국

- 토네이도,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큰 피해는 주로 허리케인에 의해 발생
- 2005년 카트리나(피해액 1,250억 달러), 2012년 샌디(피해액 82억 달러), 2011년 아이린(피해액 72억 달러)
- 허리케인의 특성 상 정확한 진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경보시스템 및 정확한 진로 예측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있음

- 국립해양대기청(NOAA)²⁰, 연방재난관리청(FEMA)²¹을 중심으로 허리케인 진로 예측 모델 개발 및 정보 전달 수단을 확립하는데 주력

□ NOAA, 허리케인 예측 향상 프로젝트(Hurricane Forecast Improvement Project) 진행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허리케인의 진로와 강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
 - 2009년 1,70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허리케인 예측의 정확도를 5년 이내 20%, 10년 이내에 50%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 미국 해군성, 미국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내무부 등 6개 정부 기관과 콜로라도 주립대학,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등 8개 학술기관이 공동으로 허리케인 예측 모델에 대해 연구
-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태풍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
 - ① 지구 규모의 대기순환 및 해양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태풍 강도진로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 ② 각 지역 수준에서의 태풍과 관련된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기온강수량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 ③ 태풍 진로와 강도의 관계성 분석, ④ 기온이나 습도 등의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 ⑤ 태풍 모델의 검증, ⑥ 태풍 모델 개선, ⑦ 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⑧ 해양과 대기 간의 영향 연구
- 2012년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처리하는 슈퍼컴퓨터를 개발하여 도입 완료함
- 연구를 통해 허리케인의 오차 범위가 크게 줄었으며, 주변 주민에 대한 조기 피난 권고 및 경보 발령이 정확해짐으로써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됨

20)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 상무부 소속으로 해양수산과 관련된 연구 및 해양 환경과 재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1)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지방정부나 주정부만으로 처리하기 힘든 재난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FEMA, 차세대 공중 경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IPAWS : Integrated Public Alert Warning System) 진행
 - 국가적 비상 시, 국민에게 직접 경보를 전달하는 수단 확립을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2012년에 도입이 완료됨
 - 민간 사업자로부터 IPAWS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립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
 - 총 5개의 경보 발신 시스템을 통합하여 다양한 경보를 전달과 경보 내용 및 경보 발신 지역의 범위에 따라 경보의 취사 선택이 가능
 - ① TV·라디오를 통한 긴급경보시스템,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기기 경보시스템, ③ 웹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경보 시스템, ④ NOAA의 기상 라디오 방송국이 운영하는 기상경보주의보에 대한 시스템, ⑤ 기타 사이렌 등
 - 현재 AT&T와 Verizon을 비롯한 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가입자는 자동으로 경보를 수신

2) 영국

- 2007년 대홍수를 계기로 홍수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에 주력
 - 2007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홍수로 55,000 가구 침수, 13명의 사망자 발생
 - 50만명의 주민은 전기와 물공급이 끊기는 등 사회 인프라 기능이 정지
 -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이 사전에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 관련 예측 모델의 개발과 정보 제공에 주력
 - 홍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약 2,500 곳에서 강수량, 하천 수위 및 유속, 해안선 조위 등을 관측
 - 관측 데이터는 NFFS²²⁾를 통해 분석 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각 지역의 지형과 조건에 따라 수량의 시간 변화율 차이도 고려됨
 - 영국 환경청은 홍수 위험 지역을 안내하는 홍수맵과 홍수 위험 예보 서비스 등 다양한 홍수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

22)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홍수 예측시스템으로 원격 관측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홍수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

□ 홍수맵

- NAFRA²³⁾의 위험 평가에 따라 하천 범람은 연간 1% 이상의 확률로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해일 홍수는 연간 0.5% 이상의 확률로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제공
 - 1월, 4월, 7월, 10월 등 연 4회 업데이트되며, 홍수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
 - 배수설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수도회사와 공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험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R&D를 진행
 - <http://www.environment-agency.gov.uk/homeandleisure/37837.aspx>

그림 영국 환경청의 홍수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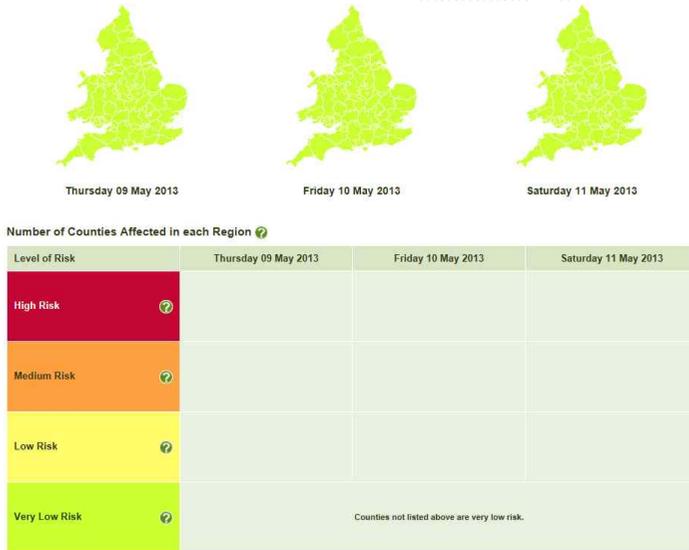
□ 3일 후 홍수 예보 시스템

- 환경청에서는 3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위험성을 예보를 통해 공지
 - <http://www.environment-agency.gov.uk/homeandleisure/floods/3days/125305.aspx>

23) NaFRA(National Flood Risk Management)는 환경청의 홍수 위험 평가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그림

영국 환경청의 3일 후 홍수 예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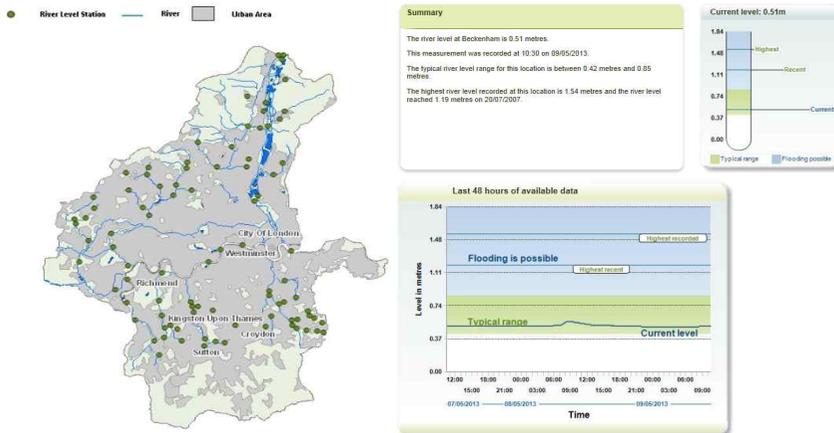


□ 하천과 해안선의 현재 수위와 과거의 이력 제공

- 하천 유역과 해안에서 관측된 수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지도상에서 수위 측정 장치의 위치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홍수 발생 경계 수위와 비교한 수위 그래프를(48시간 동안의 변화) 제공
- <http://www.environment-agency.gov.uk/homeandleisure/floods/riverlevels/136488.aspx>

그림

수위 데이터 제공 현황



- 홍수 경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 서비스 제공
 - 홍수 경계 구역의 주민들에게 전화, 휴대전화 SMS,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홍수 경보를 전달
 - 희망하는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는 무료 서비스

- 기상청과 공동으로 홍수 예보 센터 운영
 - 환경청의 정보와 기상청 정보 사이의 정보 속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 이해를 기반으로 홍수 경보를 발령하는 조직
 - 200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기상청과 환경청 양 부처의 직원에 의해 운영
 - 현재 서비스 대상이 되는 조직 수는 2,500개이며, 기상청이 20% 이상의 확률로 호우가 발생한다고 예측했을 때 홍수 정보 발령

3) 인도네시아

- 빈번한 자연재해로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추진
 - 특히 수마트라 대지진으로 약 18만 5천여명의 사망자 발생
 -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Disaster Reduction 2006-2009)을 추진
 -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액션 플랜
 -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간단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 실시
 - 범 부처 재해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d 위험 완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구 결과의 활용을 촉진
 -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한 정보 최신화 및 ICT 활용을 위한 노력 강화
 - 지역, 국가 및 해외 관계국들과 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건설,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재해 위험 경감에 대한 정보 제공

- 재해 정보의 통합
 -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InaTEWS)을 활용하여 지진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재해담당부서인 기상기후지구

- 물리청 소속 국가 조기경보센터에 위성 통신으로 전송
- 수집·관측된 데이터는 국가 조기경보센터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SS, Decision Support System)에 통합되는 동시에 해일 시뮬레이션 분석에 활용

□ 재해 정보의 전달

- 기상기후지구물리청의 국가조기경보센터에서 인터페이스 기관 (지방정부·경찰·국가방재관련 기관·방송국)으로 전달하며, 인터페이스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 경보를 발령
-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TV·라디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경보를 발령
 - 방송국이 쓰나미 경보를 수신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진도 분포도와 함께 문자 정보가 TV 화면에 표시됨
 - TV 모든 셋탑박스에 방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 정보 격차 해소 프로그램(USO,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 도심과 농촌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재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통신망 정비 추진
- 일본과 제휴하여 태양광을 통한 Oneseg²⁴⁾ 인터넷을 도입하는 ‘Community Qneseg ‘ 진행

라. 결론 및 시사점

□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 자연재해의 예측과 재해 발생 시, 긴급 정보 발령을 위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및 분석 기술, 재난대응 통신망 구축에 주력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ICT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24) Oneseg란 일본의 디지털 휴대 이동방송 서비스의 명칭,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ISDB-T) 신호는 6MHz 대역에 13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방송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세그먼트 양을 가변적으로 사용

-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고도화를 위한 ICT 투자가 요구됨
 - 센서 기반 자연재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고성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처리 기술의 개발이 필요

- 신속한 경보 발령 체계 및 경보 발령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의 확보
 - 비상통신 및 경보 발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망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통신망 구축 시, 정보 및 통신 취약 계층을 고려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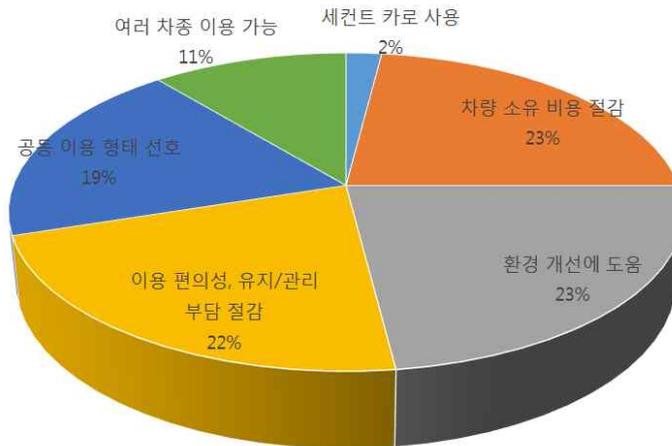
- 정보의 정확성, 재해 정보 제공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
 -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 방지, 예상 외 지역의 뜻하지 않은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
 - 재해 정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되,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소셜쉐어링의 비즈니스적 가치

가. 개요

- 소셜네트워크의 확산 속에서 소셜쉐어링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
 - 소셜쉐어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재화나 상품을 공유/교환함으로써 접근권 및 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
 - 협력적 소비: 소유와는 반대로 제품의 공유, 물물교환, 거래교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모델
 - 공유경제: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나 임대, 교환의 방법을 활용한 ‘협력적 소비’ 활동
 - 자신에게 필요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타인과 나눠씀으로써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제품 자체의 선호 → 제품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만족이나 경험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턴 변화

그림 소셜쉐어링을 이용하는 이유(차량 공유 서비스 가입 이유의 예)



자료: Frost &Sullivan(해외 사용자 대상)

□ 소셜웨어링(과잉소비→협력적 소비)의 4대 핵심 동인

-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믿음
 - 친구와 이웃의 의미에 대한 재정의(관계공유 → 사상·가치공유)
- Peer-to-Peer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기술적 진보
 - 소비 패턴 및 행동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
-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식 성장
 - 불필요한 소비를 줄임으로써 쓰레기 발생 감소, 오염 물질 배출 감소로 인한 지구 환경 보전에 관심
-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나. 소셜웨어링의 시장 가치

□ 소셜웨어링의 부상으로 인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

- 중고 물품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5R 시장의 창출(Reduce, Reuse, Recycle, Repair, Redistribute)
 - 제품 수명 주기의 연장, 쓰레기 감소
- 돈, 시간, 기술, 자원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협력적 생활로 변화
 - 협업, 카우치서핑²⁵⁾, 타임뱅크²⁶⁾, 랜드쉐어²⁷⁾ 등
- 상품의 효용에 대해 지불하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출현
 - 제품을 소유할 필요가 없이 사용하는 시스템 형태(유희생산능력²⁸⁾이 있는 부문에 효과적)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셜웨어링 시장 급성장

- 전세계 27개국에서 170만명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²⁹⁾

25) 카우치서핑이란 여행하고자 하는 곳의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무료 숙박 및 가이드까지 받을 수 있는 여행자들을 위한 비영리 커뮤니티, 전세계 207개국 48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여행자 커뮤니티

26) 특정한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하고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교환 은행. 시간이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경제

27) 땅을 소유한 사람과 경장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 필요한 식량을 함께 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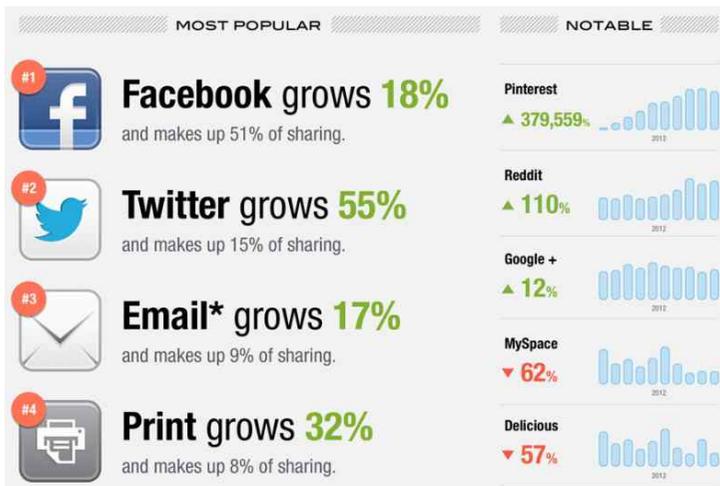
28) 현재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생산 능력(제품 수명주기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유추) 유희생산능력을 가진 제품을 빌려주고 소정의 대여료를 받을 수 있음(예: 공구, 동화책/도서, 장난감, DVD, 자동차, 자전거 등)

- 미국의 경우 2012년 카쉐어링 서비스이용자가 80만으로 2011년 대비 44% 증가
- 자동차 등록세, 보험료, 유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쉐어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2016년까지 북미지역에서 440만명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Frost &Sullivan 애널리스트 David Zhao)

□ 소셜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부상

- 핀터레스트, 레딧과 같은 소셜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
- 이미지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인 핀터레스트의 기업가치 25억 달러(약 2조 2,700억원)
-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들의 성장에도 소셜쉐어링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제품 대상의 소셜쉐어링에서 경험과 가치의 쉐어링, 나아가서는 P2P Rental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소셜쉐어링 탑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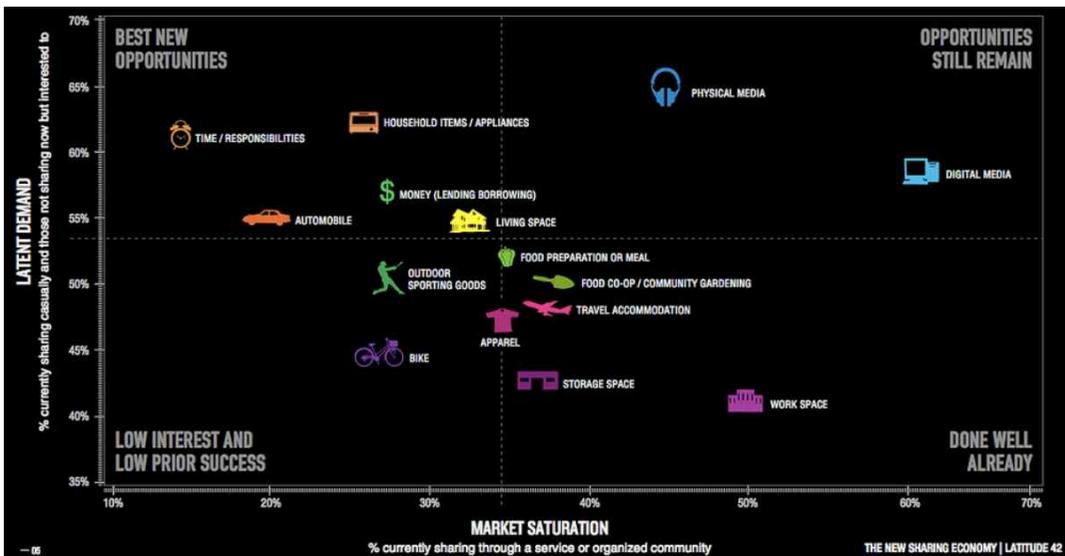
자료: AddThis Blog

29) UC 버클리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Research Center의 디렉터 Susan Shaheen

그림 소셜쉐어링 시장의 변화(자동차 쉐어링의 예)



그림 소셜쉐어링의 시장 기회



자료: latddotcom

다. 대표적인 소셜쉐어링 서비스

□ 소셜 숙박업체 Airbnb

- 2007년 설립 이후 2012년 10월 기준 192개국에서 하루 100만명 이상의 고객을 유지(일일 계약건수 5만 건 이상)
- 지형적 위치에 따라 1일 숙박 당 1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비용이 다양하며, Airbnb는 대여고객에게 6~12%, 집 소유주에게는 3%의 수수료를 받음

그림

Airbnb 한국어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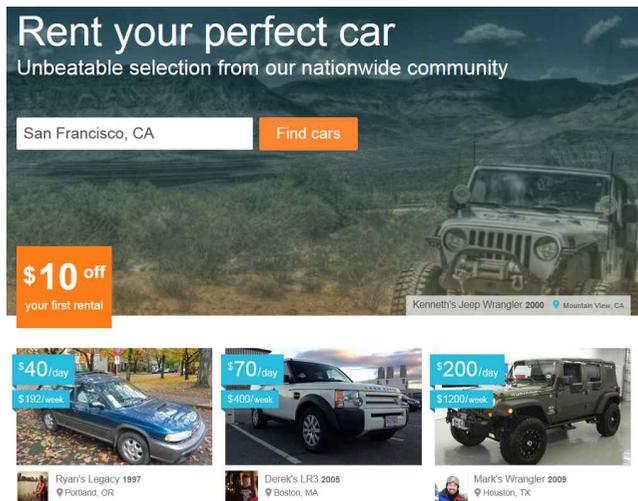


□ P2P 방식의 카셰어링 서비스 RelayRides

-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들이 차량을 등록하고 이용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웃의 차를 빌리는 서비스
 - 차 소유주가 장시간 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여도 가능
- 이용 요금은 경쟁입찰로 진행하여 원하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RelayRides의 수수료는 40%)
- 최근 GM의 OnStar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GM차 소유주들을 별도의 자동차 키 교환 없이도 모바일 앱으로 시동을 걸 수 있음

그림

RelayRides 웹사이트



라. 결론 및 시사점

- 거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당사자들의 신분 확인과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실명인증, 신용카드)
 - 당사자들 간의 상호 평가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이용자의 신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이 요구됨
 - 기존 소셜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한 신뢰 확인 방법도 적용 가능 (SNS 상의 활동 내역, 친구관계, 평판 등을 활용)

-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거래 흔적이 남는 만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해킹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나 이용 기록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소유 개념이 강한 정서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의 아나바다, 벼룩시장의 온라인 확장판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하지만, 빌려 쓰는 정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 특성 상,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특히, 개인 간 대면거래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서 정착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직장·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개를 시작한다면 거부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